From: Charles Lim <charleslimkr@gmail.com>

Sent: Saturday, November 11, 2023 5:44 PM

To: Paul P Buck <buckpp@live.com>; Grace Kim <gpkim1937@gmail.com>; Julie Park <revjuliepark@gmail.com>; Jinah Buck <jinah.buck@jsbmissionfund.org>; Timothy Buck <timothy.buck@icloud.com>; Ruth Gina Buck <ginasd0305@gmail.com>; Kenneth Park <kkpark@msn.com>

Subject: To the prayer partners of JSBMF brothers and sisters,

다봄집의 기도 동역자, JSBMF 형제 자매 여러분께,

할렐루야!

풍성한 수확과 주님의 보호하심에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을 앞 둔 복된 계절입니다. 먼저 올 한 해도 늘 함께 해주신 하늘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로 감사드리며, 최근에 있었던 저희 다봄집 소식들과 몇 가지의 기도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저희 다봄재단에서 기도하며 계획하고 있는 자족마을 형태의 공동체 사역 계획은 이곳 다봄집에서 약 20여 분 거리에 위치한 금악리 마을에서, 내년 1월부터 리모델링 공사와 함께 시작될 예정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은퇴한 성도(선교사 포함)를 위한 '아둘람 자족마을'의 시작을 바라는 분들의 참여로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 다봄집의 가족들은 그곳에서 이뤄지는 공동체의 예배와 돌봄사역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 진행되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곳 다봄집에서는, 계속해서 집 주변의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 형태의 '착한 학원'을 계획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과 관련해서는 저희와 함께 시작할 동역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부가 계속해서 이곳 돌봄 사역에만 매달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사역에 관심이 있는 두 가정의 젊은 선교사님들에게 동역 요청을 해 놓고 그들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두 선교사님 가정은 각종 캠프 사역에도 경험이 있어 저희가 실시하는영어VBS캠프 등에도 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긴급 기도제목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곧 탈북민 교육 및 돌봄사역을 위해 해외 단기선교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지금 다봄집에는 돌봄이 필요한 자매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함께 집을 비울 수가 없어서 저는 13일~18일 일정으로 그리고 제 아내는 12월 초, 약 1주일 일정으로 해외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동안 계속 기도해왔던 탈북민 돌봄 사역의 일환으로, 제3국으로 탈출한 탈북민 교육 현장 방문인 셈입니다. 이 기도제목은 따로 긴밀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연락드릴 때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과 감사의 시간들을 누리시기 바라며..

서귀포에서 임철현 선교사 올림

Hallelujah!

It is a blessed season ahead, when we give thanks for the bountiful harvest and the Lord's faithful protection this Thanksgiving. As we give thanks to our Heavenly Father in praise and worship for his constant presence with us this year, I would like to share the latest news from our 다봄집 as well as some prayer topics.

First, our 다봄재단 has been planning and praying for the community ministry in the form of a self-sufficient village, and next January we are scheduled to begin remodeling work in Geumak-ri Village, located about 20 minutes away from 다봄집. Although small in scale, it will begin with the participation of those who wish to start '아둘람 자족마을' ('Adullam self-sufficient village') for retired believers including missionaries. Our family at 다봄집 plans to participate in the communal worship and care ministry that will take place there. We will keep you updated about this plan.

As you know, we have been ministering to our neighborhood children. We also have a plan to set out a private academy, which we've called 착한 학원’. As my wife and I consider our longer-term plans, we have been asking the Lord for a partner to work with us in this ministry. To this end, we have asked two young missionary families to collaborate with us and are awaiting their decision. These two families have prior experience helping in some of our various camp ministries, so they will be a great asset for our English VBS camp ministry as well.

Lastly, there is one more urgent prayer topic. My wife and I will soon embark on a short-term mission trip abroad to educate and care for North Korean defectors. Since our Dabom House has a sister who we care for, my wife and I will be going on separate trips, mine on Nov 13-18 and my wife's for a week in early December. As part of the ministry to care for North Korean defectors, we are visiting educational sites for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ve escaped to third countries. This is a ministry we have long been praying for, so please keep these trips in your regular prayers!

Until my next correspondence, I pray that you will dwell in peace and gratitude in the grace of our Lord.

From Seogwipo,

임철현 선교사 올림